

종합

2,000년전 보성에 泔 있었다

(보)



보성에서 발견된 2천년전 보 시설과 물길의 모습(위). 토기 파편을 복원한 모습.

는 것으로 미뤄 이들 토기는 의도적으로 무슨 의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매장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목조 구조물 흔적·토기 등 30여점 발굴 대규모 농사 짓는 세력 존재 가능성 커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일대에서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쌓아 기초를 다지는 부업공법(敷業工法)으로 조성된 2천년전 보(泔·농경지에 물을 대는 작은 독) 시설이 발굴됐다. 이로써 가야와 신라의 산성에서 주로 발견된 부업공법이 그보다 훨씬 이전에 호남지역에서도 사용됐고, 이 지역 일대에 대규모 농사를 짓는 세력이 거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문화유산연구원(원장 이영철)은 7일 "농공단지 조성하고 있는 조성리 일대를 발굴조사한 결과 2천년 전 저지습지였던 이곳을 관통하는 물길과 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물길은 폭 3~9m에 깊이 0.3~0.8m 정도다. 이 물길에서는 물을 가두거나 흐름을 완만하게 해서 사용하기 위한 보 시설이 물길을 가로지른 상태로 발견됐다.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재단법인 대

120cm·높이 80cm)으로 볼 때 보 시설이 있었음이 확실하다"면서 "나무 기둥을 일정한 간격으로 박고, 그 위에 다듬은 각목과 나뭇잎, 풀을 올려 기반을 다진 부업공법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물길 하류 지점에서는 제사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단단한 민무늬토기(경질무문토기·硬質無文土器) 30여개가 매장된 상태로 발견됐다.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는 이들 토기의 모양이 원삼국시대의 토기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미뤄 보 시설이 2천여년전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원장은 "토기가 일정한 장소에서만 나오므로, 출토 지역 중앙에 물을 퍼온 흔적이 있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송도국제도시서 개막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이 7일 오전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개막식을 갖고 8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국내외 귀빈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에서는 진대제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장의 개막 선언에 이어 안상수 인천시장의 환영사와 어린이들의 개막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축전에는 국내외 137개 도시가 참가하는 세계도시관을 비롯해 전시, 이벤트, 콘퍼런스, 공연 등 68개 프로그램에 90여개 국가, 1천500여개 기업이 참가해 미래도시의 바람직한 모델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 첨단기술을 보여줄 예정이다.

축전 기간 송도컨벤시아에서는 세계환경포럼, 세계도시물포럼 등 20여건의 국제 콘퍼런스가 열리며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 지도자들이 모여 도시와 인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행사를 주최하는 인천시는 축전이 열리는 80일간 외국인 50만명을 포함해 총 700만명이 인천을 방문하고, 이 중 500만명이 주행사장을 관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 민심탐방

한승수 국무총리가 7일 담양 소재원을 방문,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민생탐방에 나선 한 총리는 이날 담양과 곡성 등지의 건설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동네슈퍼 공동브랜드 만든다

정부차원 물류·서비스 재고 등 대책 추진

최근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장악 논란과 관련해 중소 유통업자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체들이 SSM에 맞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류와 서비스, 재고와 매장관리 등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소규모 슈퍼마켓의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구매·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

해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공동 브랜드 사업이 핵심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대형유통업체의 경영 방식을 본 딴 것으로 체인 본부로부터 일괄적으로 상품을 공급받아 단가를 낮추고 물류비용을 최소화하며 간판, 직원 유니폼 등도 통일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공동 브랜드 사업은 이익의 일정비율을

본사가 가져갔던 기존의 프랜차이즈 방식 대신 독립가맹점 시스템으로 운영돼 개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 2003년 소상공인들의 물류비를 줄이고자 도입된 공동도매물류센터 추가 건립을 위한 예산 지원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대책'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쯤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파주 교하 입찰 로비' 금호건설 압수수색

경기경찰청, 파주시청도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7일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 비리 사건과 관련, 금호건설과 파주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 금호

건설 본사 19층 영업팀에 11명, 파주시청 5층 균형발전과에 6명의 경찰관을 각각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또 입찰 평가위원인 서울 Y대 이모 교수에게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0장을 건넨 금호건설 J과장 집(서울 구로구)에도 경찰관 5명을 보내 집 내부와 승용차 등에서

일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건설 압수수색은 법인카드 및 영업활동비 사용내역, 회계장부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파주시청에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추진 상황, 입찰 평가위원 선정 과정, 입찰 결과 등이 담긴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한 뒤 건설사 관계자 등을 불러 평가위원 명단 입수 경위와 이들을 상대로 로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시설

여수박람회 D-1000일 성공개최 차질없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이제 10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수시와 여수박람회조직위원회는 오는 10일 박람회 마스코트 설치 등 D-1000일 기념행사를 연다. 로제르 BIE사무총장과 해외 언론인들도 여수세계박람회장 예정 부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지난 2007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된 이후 지원특별법 제정·공포와 함께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종합기본계획안이 마련되는 등 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박람회 참가국 유치교섭이 시작된 이래 중국과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이 참가를 공식 통보했고 UN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참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전시관 중 한국관을 국내 최초의 탄소배출 제로건물로 세우고 여수시를 미래 녹색시

장 견본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점도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D-1000일 앞둔 현 시점에서 성공 개최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민자유치가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대회 기간 동안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 확보도 시급한 과제다. 당초 예정됐던 대규모 호텔 건립사업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신규 사업자 확보 역시 불투명한 실정이다. 4대강 살리기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고속도로 건설 등 SOC 예산마저 삭감 위기를 맞고 있다.

남해안을 새롭게 변모시킬 여수세계박람회가 불과 3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얼마 남지 않은 준비기간을 잘 활용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관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도 강력한 지원의지를 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

공직사회 호남 확대 전방위 확산 된다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 공직사회에서 호남출신들을 확대한 풍조가 시작됐고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언론악보 원천무효를 위한 광주·전남 규탄대회" 참석자 6일 광주에 온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인으로서 어느 정도 과장된 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일련의 인사를 보면 '과장'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얼마 전 검찰총장 내정 인사 때 권력 핵심부의 '호남인사 배제'라는 가이드 라인

때문에 호남출신이 나마한 사실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직과 4대 권력 기관장은 물론 주요 부처장관 자리에 호남출신은 배제됐다. 오죽하면 현 정부의 호남 확대가 군사정권 때보다 더 심하다는 말까지 나올까.

문제는 호남 배제가 1급 이하 고위직에서조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

난달 31일 취임한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에 전남 출신은 총무처 출신 1~2명을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게 어디 행정안전부만의 일이라는가.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권력을 잡았을 때 실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출신 지역'을 잣대로 인사를 해서 안 된다. 망국병으로까지 불리는 지역감정도 결국 지역 차별 인사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편중 인사라는 고질병부터 없애야 한다. 특정지역의 패권주의적 인사구도에서 국민통합의 리더십이 절대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인사 때마다 특정 지역민들이 한없이 좌절감과 패배감 속에 빠져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곧 단행될 내각인사와 그 후속 인사를 지켜보겠다.

"北 억류근로자·연안호 해결에 최선"

李대통령 "국민생명 직결"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정부는 오늘로 131일째 억류돼 있는 개성공단 근로자와 연안호 선원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등으로부터 북한의 미국 여기자 석방과 이후 남북 및 북미관계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의 걱정과 관심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민도 정부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양국이 미국 여기자 석방문제와 관련하여 사전과 사후에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했다"면서 "앞으로 북미간 어떤 접촉도 이처럼 한미 양국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및 미국 여기자 석방과 관련, 장기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와 연안호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클린턴, 김정일에 핵 종식 필요성 언급

안보 등 광범위한 논의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 여기자 석방을 위해 방북한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과 안보 및 지역 현안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백악관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활동은 여기자 석방을 위한 인도주의적 임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은 여기자 석방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클린턴 전 대통령

이 김 위원장에게 핵 프로그램 종식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했다는 사실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들은 클린턴이 북한 지도부에 과거에 납치한 한국 및 일본인들을 석방하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경제·외교적 보상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고 말하고 있다.

신문은 최근 북한측과 만난 전직 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갈수록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같은말 쓰겠다 뭘 걱정--?

'대박' 로또 번호는 '1과 37'

5번에 1번 꼴 1등 당첨번호
17·4·19·39도 행운의 숫자

로또 복권의 역대 최대 1등 당첨 번호는 '1'과 '37'인 것으로 7일 분석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로또 1회부터 342회 차까지 당첨 번호를 분석한 결과 1등에 '1' 또는 '37'이 포함된 경우가 67번에 달했다고 밝혔다. 즉 '1'과 '37'은 평균 5번에 1번 정도가 1등 당첨 번호에 들어간 셈이다.

'17'이 1등 당첨 번호에 들어 있는 경우가 64번에 달했고 '4', '19', '39'가 61번, '2'가 60번, '3', '34'가 59번, '27', '33', '36', '43'이 58번이었다. /연합뉴스

이러 '35', '42'가 57번, '14', '45'가 56번, '18'이 55번, '7', '8', '20'이 54번 순이었다.

'5', '21', '25'는 53번, '6', '11', '13', '16', '26', '31', '40'은 52번, '10', '32', '38'은 50번, '30'은 49번, '15', '24', '44'는 48번이었다.

올해 상반기 최대 1등 당첨액은 320회차의 55억1천300만원이었다. 한편 복권위는 거액이 당첨될 경우 시간을 가지고 손익과 우선 순위를 생각하라고 당부했다. 복권위는 복권 당첨 행동수칙을 통해 최소 3개월 동안 당첨금이 손을 대지 말고 자산관리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나서 회계사, 자산관리사, 투자전문가, 재산관련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부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1부 2200-612	사건부 2200-69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